

“종단 위한 일이라면 적극 나서는 건 당연”

서울 봉은사 스님과 신도들
성역화불사에 10억원 쾌척

“빼앗긴 땅 찾고 GBC 막을것”

서울 봉은사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에 10억원이라는 거금을 쾌척했다. 봉은사 옛 땅(한전부지)인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저지 활동으로 지난해 다른 어떤 곳보다 숨 가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던 봉은사지만, 종단을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는 사중 스님과 신도들의 의지가 강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과 교무국장 정안스님, 한원덕 신도회장 등 20여 명은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봉은사 스님과 신도들은 이 자리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10억원을 지정 기탁하며 새해인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고맙다”며 신도들을 반갑게 맞았다. 총무원장 스님은 성역화 불사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성역화 불사는 종단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과 한원덕 신도회장을 비롯한 사중 스님과 신도임원들이 지난 5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아름다운동행에 총본산성역화 불사금 10억원을 지정 기탁했다.

에서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향후 10년을 내다 보고 있는 사업이다. 성역화 불사가 진행되면 총무원, 그 산하 단체들이 봉은사 인근으로 이전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봉은사에서 기꺼이 나서 힘을 보태줘 고맙다”고 전했다.

또 총무원장 스님은 무엇보다 천년고찰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사중 스님과 신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올 한 해도 종단과 함께 수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전부지 환수(역사문화보존) 활동은 종단과 봉은사의 핵심과제이자 주요 사업으로 치열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종단과 봉은사 뿐 아니라 전국 본·말사가 모두 동참하는 것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복잡한 시국이지만 모든 일이 안정되고 지혜롭게 진행되길 기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신도들은 총무원장 스님의 당부에 “종단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원덕 신도회장은 “봉은사를 사랑하는 신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빼앗긴 봉은사 땅을 되찾고 수행환경을 정비하는 초고층 신사옥 개발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신도들이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했다. 수월(법명) 신도회 부회장은 “봉은사와 종단 발전을 위해서라면 적극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담스럽기보다는 뿌듯하고 기쁘다”고 전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총본산성역화 불사 동참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증흥을 위한 조계종총본산 성역화불사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모연금은 조계종 총무원 일대를 장엄하는 여법한 불사에 소중한 사용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기금 모연 명단

(2016년 12월23일~2017년 1월3일)

□기금 : △강화 보문사(주지 정문스님) 5000만원 △부산 청량사(주지 운암스님) 1000만원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정목스님) 400만원 △홍진스님 300만원 △양양 낙산사 홍련암(회주 정념스님) 200만원 △성주 관음사(주지 지산스님) 100만원 △박지연 100만원 △서을 흥천사(주지 정관스님) 50만원 △조봉자 12만원 △김민준 10만원 △김원준 10만원 △부산 장곡선원(주지 원여스님) 10만원 △안순환 10만원 △오순석 10만원 △박정규 5만원 △구인옥 5만원 △김상기 5만원 △김영주 5만원 △서을 미아 봉은사 5만원 △이병찬 5만원 △김민태 2만원 △백숙자 2만원 △신진호 2만원 △강태원 1만원 △강태운 1만원 △김미애 1만원 △심현정 1만원 △엄성현 1만원 △최철순 1만원 △이미숙 3100원. (총 7254만3100원)

※ 모연 후 전화(02-730-6690)를 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성역화 불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동국대 곳곳 살펴 이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고민”

정념스님, 발전기금 5000만원 전달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사진)이 지난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동국대 발전기금 50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동국대 이사를 맡고 있는 정념스님은 이날 “학교 곳곳을 살펴 이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왔다”며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학교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동기를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립학교 발전을 위해 새해부터 큰 선물을 해줘 고맙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동국대 법인 이사들이 이사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다해줄 것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번 기금 전달을 계기로 종단에서 파견한 모든 종립학교 법인 이사들도 심시일반 힘을 보태 학교 발전에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함께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 화해·치유없는 위안부 합의의 1년

“애당초 잘못된 합의, 폐기해야”

‘한일 정부의 졸속 굴욕 합의’ 비판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단은 이 기금으로 10월부터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에게 현금 수령의사를 묻으며 분할 지급을 강행해오고 있다.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를 비롯해 여론은 지난 1년 동안 합의안 폐기와 재단 해체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번번이 묵살했다. 국민들은 피해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 없는 합의안에 ‘한일 정부의 졸속, 굴욕 합의’ ‘역사 지우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피해자들은 “돈으로 치유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 “역사를 팔아먹

지 말라”며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 중 재단의 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국내 생존 피해자는 10여 명, 그 중 6명이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나눔의집 할머니들이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현금 수령은 피해 당사자 의사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고령의 나이에 어렵게 생활하는 할머니들과 그 가족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합의안 강행에 맞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현금 지급이 완료되면 ‘최종적·불가역적’이라 명시된 합의안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안 소장은 “재단의 행태는 돈으로 피해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 없는 합의안이 속도를 낼수록 피해할머니들의 상처만 커져 가고 있다”고 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종단과 긴밀하게 협력 호흡” 모든 종교 아울러 업무 추진

김재원 총무실장 총무원 예방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재원(사진)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총무실장의 예방을 받고 종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종교 간 가교 역할을 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종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호흡해야 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총무실장은 종교적인 색깔 보다는 종교 전체를 잘 아울러서 소신껏 업무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재원 신임 총무실장은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뵙게 됐다”며 “말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재원 총무실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0회 출신으로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장과 콘텐츠정책관, 체육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 문화부장 정현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박기원 총책특보, 이상호 문체부 총무관 등이 배석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2016년12월28일 중무회의)



성도스님
서천 명수암



몽홍스님
음성 칠성사



정우스님
철곡 죽림정사



광해스님
부산 사리암



본서스님
현암 금대암



성담스님
완도 영주암



정선스님
제주 관음정사

永訣式 奉行에 대한 感謝의 글

귀의삼보하옵고,

지리산 화엄사에서 주석하시던 宗標 和尚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佛紀 2561(2017)年 1月 1日(陰 12月 4日) 午後 10시 法臘 43年, 歲壽 59歲로 圓寂에 드셨습니 다. 遠行에도 永訣式에 참석해주신 四部大衆에 感謝의 말씀을 올립니다.

■ 49재 일정 ■

• 초재	1월 7일(음 12월 10일) 10시	화엄사
• 2재	1월 14일(음 12월 17일) 10시	천은사
• 3재	1월 21일(음 12월 24일) 10시	화엄사
• 4재	1월 28일(음 1월 1일) 10시	화엄사
• 5재	2월 4일(음 1월 8일) 10시	기림사
• 6재	2월 11일(음 1월 15일) 10시	천은사
• 7재	2월 18일(음 1월 22일) 10시	화엄사

문의 : 화엄사 중무소 061)783-7600

불기2561(2017)년 1월 3일

大韓佛教曹溪宗 第19教區本寺 華嚴寺
葬儀委員會 委員長 靈觀 合掌

